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중심으로

Parental Stress of Working Mother with Toddlers

: Focus o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ttitude for Occupation,
and Preschool Adjustment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박사과정 양 숙 경*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 교수 문 혁 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 : Yang, Suk-Kyung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Ju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orking parent stress. This study surveyed 240 working mothers who are raising toddlers and 106 teacher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For this study, the Parenting Stress scale developed by Kim & Kang (1997) was used as the instruments for measurement and parental stress. To measur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this study used th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MSAS) developed by Hock (1989), while the Attitude for Occupation scale developed by Farel (1980) was used to measure the attitude for occupation. In addition, 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 developed by Jewsuwan, Luster and Kostelink (1992), and modified by Oh Chong Eun (2001) were used as the instruments for measurement and adjustment.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the SPSS WIN 15.0 versio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 to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ne-way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fluential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parenting stress listed in order of significance were maternal attitude for occupation, adjustment of children, maternal anxiety, and income.

▲주요어(Key Words) : 취업모(Working mother),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어머니의 분리불안(maternal separation anxiety), 직업에 대한 태도(attitude for occupation), 어린이집 적응(preschool adjustment)

* 주 저 자 : 양숙경 (E-mail : ysk7744@hanmail.net)

** 교신저자 : 문혁준 (E-mail : mhyukj@unitel.co.kr)

I. 서론

현대사회 특징 중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취업모의 경우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주부로서의 역할과 함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균형 있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모가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이영, 1986; Menaghan & Parcel, 1981)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김기현, 2000). 또한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있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주요한 생활사건의 경험보다 아동과 부모, 가족의 기능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오은경, 2002).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역할에서 느끼는 특정한 스트레스 유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Abidin, 1992), 김기현과 강희경(1997)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에게 양육스트레스를 일상적 스트레스 및 부모역할 수행에서 오는 스트레스 외에 타인양육에 따른 죄책감 내지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라고 하였다(임순화·박선희, 2010).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하게 되며(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그 결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낮아지고(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Dumas & Gibson, 1990).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며(박영아, 2005),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초래하기도 한다(오은경, 2002).

2010년 4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49.9%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변인을 규명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며 양육의 어려움과 긴장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와 관련된 변인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와 돌봄이 더 많이 요

구되기 때문에 신체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며,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문혁준, 2004)와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박성옥, 1997; 박영아, 2005)가 있다. 아동의 성에 따라서도 일관되지 않은 선행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남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여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높다는 연구(박영아, 2005; 신숙재·정문자, 1998), 여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남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높다는 연구(문혁준, 2004), 자녀의 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성옥, 1997).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임순화·박선희, 2010)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부모와 관련된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는데(선미정, 1995), 특히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자녀 양육방법에 따른 자신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과도 관련되는 변수라는 면에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변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기현, 2000). 선미정(1995)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가 적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부모 자신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arnett과 Baruch(1987), 오은경(2002)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부모역할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이 더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김리진·윤종희, 2000)가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박영아, 2005)가 있다.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다는 연구결과(임순화·박선희, 2010; 정문자·이미리, 2000),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기현, 2000; 김리진·윤종희, 2000)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은 서구 문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핵가족화 되고 있으나 실제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적인 경향을 많이 지니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의 주책임은 어머니이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기현, 2000).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가 존재하는 한 자녀를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게 맡겨두고 직장에 나가야만 하는 어머니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 죄책감 내지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Belsky, 1992).

어머니는 아이의 주양육자로서 항상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느끼게 되며, 취업으로 인한 자녀와의 격리는 취업모에게는 높은 죄책감과 불안의식을 갖게 한다(남주현, 2003). 따라서 이러한 죄책감과 불안의식은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자녀를 떠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 상태로 어머니가 아이를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슬픔, 근심, 죄책감, 불편함의 감정을 의미한다(Luts & Hock, 1995).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아동과의 접근을 통한 안정성이나 신체적 밀접함을 통한 보호, 안락감을 줄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방해받음으로써 비롯되는데, 이러한 어머니와 아동의 격리는 기존의 친밀감을 방해하고, 주변세계에 대한 아동의 탐색과 발견을 조장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감소시킨다(박성옥, 1993). Hock와 Schirtzinger(1992)는 격리불안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서로 공통성이 있거나 의존적인 발달성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격리불안을 가진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Hock(1980)의 연구에서 보면 직업에 대해 경력지향성이 강한 비취업모의 경우 격리 때 아이가 보이는 불안을 어머니 부재에 의한 원인으로 인지하는 반면, 경력지향성이 강한 취업모는 어머니-영아 격리에 대해 보다 덜 걱정하고 또 절대적인 어머니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표현도 덜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어머니의 불일치된 직업 상황은 어머니-영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취업모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일하는 것과 어머니 됨으로부터 만족감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Morgan, 198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 관련 변인인 직업에 대한 태도는 취업모의 정서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직업적 성취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으로 취업모의 직업에 대한 태도는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김기현, 2000).

성인기에 직업을 갖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정체감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 재능 등을 발휘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 나아가 직업에서 만족을 얻음으로써 자기를 필요한 존재로 소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은 기혼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오은경, 2002).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업과 일에 대한 즐거움을 갖는 어머니는 보다 긍정적이며 이러한 어머

니의 정서적인 상태는 가정 내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고 할 때(남주현, 2003), 이러한 직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면 가정생활에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업모에게 있어서는 양육스트레스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겠다.

취업을 위하여 직업을 갖게 된 여성은 자신들의 성취나 자아표출 등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문직 여성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된다(오은경, 2002).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취업여성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적지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강도를 증가시키므로써 이를 보상하려고 노력한다. 즉,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가보다는 질적으로 얼마나 더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지혜선, 1999). 따라서 취업모가 직업이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자녀와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면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를 찾아볼 수 없으나 박영아(2005)의 연구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취업여부 그 자체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인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업에 대해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태도는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아동특성요인을 들 수 있다. 아동 특성 중 아동적응은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그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원영미, 1990). 즉 개인이 환경 안에서 만족할만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상태를 일컫는다. 또한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있는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기능적이거나 학습화된 변화를 의미한다. 즉 유아교육기관의 규칙을 습득하며 지키고 교사 및 또래와 상호작용에서 인정받는 것을 배우고,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임말자·최경순, 2003). 최순덕(2007)은 유아에게 있어서 유치원 적응이란 유아가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유치원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추어갈 뿐만 아니라 유치원 일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유아와 또래 및 타인 사이에서 불균형과 불안정 등의 긴장감 없이 유치원 내에서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영아들에게 있어서 어린이집은 가정을 떠나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 환경으로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아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서 가진 긍정적인 경험은 후에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삶의 과정동안 계속되는 새로운 집단에 대한 적응에 성공적인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장은미, 2008; 정은혜, 2000).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을 외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수용자로 보고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강조하였다(유우영·이숙, 1998).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Ambert(1992)는 아동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필요한 발달을 이루어 가는 주체임을 밝히면서 아동이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허영림·윤혜진(2002)의 연구에서 아동적응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변인 중 어머니 역할한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Crinic과 Greenberg(1990)는 아동의 부적응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킴으로써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동에게는 적대감을 투사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동은 문제 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면서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악순환으로 계속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Zeanah(1993)는 아동의 부적응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어머니 요인을 강조하였고, 자녀가 부적응 문제를 보이게 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Hamner & Turner, 2001).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가 어떤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고는 있으나 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변인을 규명하여 취업모가 처해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취업모를 돕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마련하는 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의 연령, 성별, 형제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의 연령, 형제유무,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태도,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중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2세반에 재원중인 생후 19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둔 취업모와 학급의 담임교사 10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2009년 6월 30일부터 2009년 8월 21일까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어린이집 36곳의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영유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 = 240)			
	구분	빈도	%
성별	남	114	47.5
	여	126	52.5
연령	19~24개월 이하	58	16.9
	25~30개월 이하	70	20.3
	31~36개월 이하	112	32.6
형제유무	외동아	114	47.5
	형제아	126	52.5
어머니 연령	26~30세	38	15.8
	31~35세	138	57.5
	36~40세	56	23.3
	41세 이상	7	2.9
	무응답	1	0.4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47	19.6
	전문대학 졸업	39	16.3
	대학교 졸업	123	51.3
	대학원 이상	29	12.1
	무응답	2	0.8

<표 2> 교사의 일반적 특징

			(N = 106)	
	구분	빈도	%	
나이	25세 이하	33	31.1	
	26~30세 이하	29	27.4	
	31~35세 이하	21	19.8	
	36세 이상	21	19.8	
	무응답	2	1.9	
경력	1년 미만	26	24.5	
	1년 이상~3년 미만	21	19.8	
	3년 이상~5년 미만	22	20.8	
	5년 이상~10년 미만	25	23.6	
	10년 이상	12	11.3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23	21.7	
	2~3년제 대학 보육 관련학과 졸업	38	35.9	
	4년제 대학 보육 관련학과 졸업	41	38.7	
	대학원 이상	3	2.8	
	기타	1	0.9	
결혼유무	기혼	38	35.9	
	미혼	38	64.2	

의 성별은 남아 114명(47.5%), 여아 126명(52.5%) 이었으며, 영유아의 연령은 19~24개월 58명(16.9%), 25~30개월 70명(20.3%), 31~36개월 112명(32.6%)을 차지하였고, 출생순위는 외동아가 114명(47.5%), 형제아는 126명(52.5%)을 차지하였다. 취업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26~30세 38명(15.8%), 31~35세 138명(57.5%), 36~40세 56명(23.3%), 41세 이상 7명(2.9%)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47명(19.6%), 전문대학 졸업 39명(16.3%), 대학교 졸업 123명(51.3%), 대학원 이상 29명(12.1%)이었다.

다음으로 교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106명으로 교사의 연령은 25세 이하가 33명(31.1%), 26~30세 이하 29명(27.4%), 31~35세 이하와 36세 이상은 각각 21명(19.8%) 이었다. 교사의 경력은 1년 미만이 26명(24.5%), 1~3년 미만 21명(19.8%), 3년~5년 미만 22명(20.8%), 5년~10년 미만 25명(23.6%), 10년 이상 12명(11.3%) 이었다. 교사의 학력은 보육교사교육원 23명(21.7%), 2~3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38명(35.9%),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이 41명(38.7%), 대학원 이상 3명(2.8%) 이었으며, 보육교사의 결혼유무를 살펴본 결과 결혼을 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68명(64.2%)으로 결혼을 한 보육교사 38명(35.9%)보다 많았다.

2.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현과 장희경(1997)이 개발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88,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87이었다.

2)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MSAS(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Hock, 1989)중 '일반적 어머니의 분리불안' 영역의 문항을 안지영·도현심(1998)이 번역하고 수정한 19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영유아의 어머니가 평가하였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도구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4였다.

3)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arel(1980)이 개발한 것을 이희경(1981)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자녀에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 어머니의 직업이 자신에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8 이었다.

4)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영유아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Jewsuwan, Luster, Kostelink(1993)이 개발한 유아원 적응 질문지(PAQ: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오종은(2001)이 번역하여 만 1, 2세 영유아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담임교사가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친사회적 행동(4문항), 긍정적 감정(7문항), 또래관계(6문항), 자아강도(4문항), 일과에 대한 적응(9문항)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요인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적응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영유아의 연령, 성별, 형제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ANOVA), t검증, 영유아의 연령, 형제 수, 부모학력, 월평균소득,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영유아의 적응 중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영유아의 연령, 성별, 형제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영유아의 연령, 성별, 형제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F검증(ANOVA)과 t검증의 결과는 <표 3>, <표 4>, <표 5>와 같다. 먼저, <표 3>에서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19~24개월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25~30개월 영유아의 어머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표 4>와 같다. 남아의 어머니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모두 여아의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유아의 형제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형제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모두 외동아의 어머니보다 형제아의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N = 240)			F
	19~24개월 (n=58)	25~30개월 (n=70)	31~36개월 (n=112)	
	M(SD)	M(SD)	M(SD)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3.02(.64)	2.98(.58)	2.96(.58)	.25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2.76(.60)	2.87(.66)	2.77(.62)	.74

<표 4>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N = 240)		t
	남아 (n=114)	여아 (n=126)	
	M(SD)	M(SD)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3.02(.63)	2.94(.55)	.34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2.87(.65)	2.73(.60)	.09

<표 5> 영유아의 형제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외동아 (n=114)	형제아 (n=126)	t
	M(SD)	M(SD)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2.94(.56)	3.02(.62)	.29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2.75(.60)	2.84(.65)	.24

(N = 240)

<표 6> 영유아의 연령, 형제유무,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영유아의 어린이집적응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B	β	B	β
영유아 연령	-.00	-.04	-.01	-.05
형제유무	.10	.08	.14	.11
어머니의 교육수준	.03	.04	-.09	-.13
월 평균소득	.09	.19**	.03	.07
어머니의 분리불안	.41	.22***	.14	.07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51	-.29***	-.51	-.27***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24	-.12*	-.32	-.16*
R2	.21		.15	
F	8.66***		5.64***	
DW	2.01		2.04	

(N = 240)

*p<.05, **p<.01, ***p<.001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지수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지수는 1.01~1.49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 I수도 2.01~2.04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인은 영유아의 연령, 형제유무,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 평균소득,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에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beta = -.29, p < .001$), 어머니의 분리불안($\beta = .22, p < .001$), 월 평균소득($\beta = .19, p < .01$),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beta = -.12, p < .05$) 순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1%였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beta = -.27,$

$p < .001$),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beta = -.16, p < .05$) 순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5%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는 것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는 영유아의 연령, 성별, 형제유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각 하위요인의 차이는 모두 나타나지 않아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유우영·최진아·이숙, 1998)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을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제한했을 때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강희경·조복희(1999)의 연구에서 생후 3년간의 발달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므로 연령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박영아(2005)는 특정 연령에서 부모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거나 덜 느끼기보다는 영유아가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주

의와 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뚜렷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는 남아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소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박성옥, 1997; 이윤선, 2008)와 일치하는 반면, 신체활동성이 여아보다 남아가 높아 어머니들의 주의와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여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높다는 연구(강희경·조복희, 1999)와 남아에 비하여 옷 입히기, 머리 빗기 등 세심한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보다 높다는 연구(편은숙, 2004)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형제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외동아보다 형제아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소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어린자녀의 출생은 가족 발달 주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지출은 부모들에게 부정적인 사건으로 지각되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Cr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에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분리불안, 월평균소득,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이 자신과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영유아가 적응을 잘 할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직업이 자신과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유아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 할수록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두 하위변인 모두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취업모에게 직업에 대한 태도는 일의 생산성이나 능률 향상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스트레스 및 부모역할 부담감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취업모 집단에게 어머니 스스로가 직업이 자신과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자녀양육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가 적응을 잘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상관관계 연구 결과에서 부적응의 결과를 보인 연구결과(남혜순, 2003; 조용신·정영숙, 2000)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시설이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서는 초기 적응의 중요성과 함께 신입원아에 대하여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부모들은 이를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취업모의 근무시간을 융통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박성옥(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시설이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들이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간 갈등을 적게 경험한다고 할 때, 직장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고된다고 할 수 있겠다. 직장보육시설은 자녀가 가까운 곳에서 보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보육시설의 스케줄이 그 직장의 스케줄에 맞춰 있기 때문에(조선일보, 1999, 12, 6) 취업모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월 평균소득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대체 인력이나 기술을 가사나 자녀양육에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정문자·이미리, 2000)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사교육 등의 자녀 관련 지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취업모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 뿐 아니라 아버지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해 봄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취업모의 직업유형을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업유형을 구분하여 자녀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 지지 않았지만 배우자로 부터의 지지나 타가족원으로부터 받는 지원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수라고 여겨지므로 후속연구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김기현(2000).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9(1), 71-84.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혜진(2005).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주현(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박성연·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성옥(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2), 37-45.
- 박성옥(1997). 취업상태 및 선호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73-90.
- 박영아(200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유아교육연구*, 8, 97-113.
- 선미정(1995). 취학전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 *기전여자대학 논문집*, 15, 33-41.
- 신숙재·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19(1), 27-42.
- 안지영·도현심(1998). 자녀 양육행동, 아동의 낮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6(8), 13-20.
- 오은경(2002). 취업모의 양육태도, 배우자의 지지 및 직업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종은(2001).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우영·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인인과관계: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유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윤미향(2006). 취업모의 취학 전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1986).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관리 현황 조사. *아동학회지*, 7(1), 1-23.
- 이희경(1981). 모의 취업이 자녀의 적응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말자·최경순(2003). 유아의 성·연령·기질 및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유아 교육연구*, 23(1), 169-207.
- 임순화·박선희(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251-278.
- 장병옥(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은미(2008). 영아의 기질, 조기교육경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서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문자·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외 상대적 영향력

-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정안나(2007).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혜(2000).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용신·정영숙(200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71-281.
- 지혜선(1999).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와 어머니 역할 만족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순덕(2007). 유아의 유치원 적응 관련변인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허영림·윤혜진(200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만 4-6세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6(4), 85-101.
- 통계청(2010). <http://kosis.kr/> 성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Ambert, A., M(1992). *The effect of children on parents*. Binghamton, New York : The Haworth Press.
-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Social roles,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R. Barnett, L. Biener, & G. Baruch 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Free Press.
- Belsky, J. (1992). Consequence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A Deconstructionist View. *The National Symposium on Child Care in 1990s* held June 19-20 at University of Nevraska. pp. 83-94.
- Crnic, K. L.,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umas, J. E., & Gibson, J. A. (1990). Behavior correlat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conduct-disorder children : II. Systemic effects involving fathers and siblings.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58, 877-881.
- Hamner, T. J., & Turner, P.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Allyn & Bacon, Boston.
- Hock, E. (1980).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 and their infants: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caregiving characteristics and infant social behavior. *Merrill palmer Quarterly*, 26, 80-101.
- Hock, E., & Schirtzinger, M. B. (1992).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ts developmental course and relation to maternal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3, 93-102.
- Lutz, W., & Hock, E. (1995). Maternal Separation Anxiety. Relations to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of Infa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1), 57-72.
- Menaghan, E, G., & Parcel, T, L. (1981). Parental Employment and family Life: Research in the 1980s.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pp.361-180). Minneapolis: NCFR.
- Morgan, K. C. (1981). A longitudinal study of following the birth of a child.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2, 2330A.
- Zeanah, C. (1993). *The family context of infant mental health Part I: Affective development in the primary care giving relationship*. New York: Guilford.

접수 일 : 2010년 05월 15일

심사 일 : 2010년 05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8월 18일